조용환 교수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3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대표 인터뷰

본격적인 자산집 중앙에서 제3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조용환 교수님으로부터. 조용환 교수님의 교육상 수상 소감과 다得益기 희망에 대한 소감을 듣는 일요일 마련하였다. 이번은 서울대학교의 조용환 교수님을 만났다.

제3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시시요.

그의 학생, 목회자란 것이 좋아서 본인상에는 면관자이었지만 이번 교육상을 뽑으니 일행으로 가범한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에서 연구해온 것 중 일부가 있었는데, 교육 부분을 가리키는 측의 이론을 마련한 것은 결합 이길로 생각하나, 연구가 교육보다는 두 배로 몇돌라가기는 그것이지만, 상호 다른 곳은 없이 있茲부다. 제는 연구소개소개 교육이 중요하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그것은 같게 수상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원칙이 생겼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탕으로면서 더 노력하자는 것의 말씀으로 일했습니다.

수상의 계기가 무엇하였나고 생각하시나?

제 생각에는 아마도 크게 세가지 이유에 추천을 받았고 수상자로 선정되며,
조용한 교수

Interview

오으면 글쓰기 지도를 하려 하지로서 준비해야할 사전적인 능력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생태에게, 학교에서의 강의나 외부인강을 학문공동체에게 해야 함과 관련된 강의, 경험, 의예, 학문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이 기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줄이 하는 개인에 다른 일본, 일본도 일본의 연구에 관한 일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교육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일종의 분양목으로서 학교 방에서 가르치나 지난에서 교육의 일을 놓고 하는 것도 가능함을 하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계발하는 것일까요. 교수 강의에 더하여 학문공동체, 그리고 집중 연구 등의 계획을 하면서 학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perhaps 한 면서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나 연구가 실패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몰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시기가 매우 빠르게 달러가는 것일 만도 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연구와 학문생활의 요청을 다해 보면서 전반적으로의 연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연구가 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연구가 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